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제주도 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임 이 현

2018년 6월

#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제주도 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송 재 흥

임 이 현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임이현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8년 6월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on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  
- Focused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Jeju

Im, I Hyun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2018. 6.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임 이 현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 재 흥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주된 정서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개인 심리적인 특징 및 오랜 기간 안정적인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유의미한 양방향적 관계에 대한 주장은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의 개인 내적요인 및 보호요인으로, 또래동조성은 청소년 비행의 개인 외적요인 및 위험요인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인의 내적요인인 자기통제력과 개인 외적요인인 또래동조성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치료적 개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청소년 비행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는 제주도 내에 위치한 7개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517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중복응답 등의 이유로 자료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495부의 자료가 이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들은 상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과 또래동조성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공격성은 자기통제력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각 하위요인의 관계에도 자기통제력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동조성은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청소년 비행과 또래동조성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각 하위요인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독립적 행동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반사회적 행동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만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또래동조성은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래동조성에 대한 척도 검토 및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후속연구가 보충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대개 또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관련 변인들의 특성과 개념의 차이에 따라 또래 관련 변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부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제주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용어의 정의 .....	4
II. 이론적 배경 .....	6
1. 공격성 .....	6
가. 공격성의 개념 .....	6
나.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 .....	7
2. 청소년 비행 .....	8
가. 청소년 비행의 개념 .....	8
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	9
3. 자기통제력 .....	10
가. 자기통제력의 개념 .....	10
나.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	11
4. 또래동조성 .....	12
가. 또래동조성의 개념 .....	12
나.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 .....	13
III. 가 설 .....	14
IV. 연구방법 .....	16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6
2. 측정도구 .....	17
가. 공격성 질문지 .....	17
나. 청소년 비행 척도 .....	18

다. 자기통제력 척도 .....	19
라. 또래동조성 척도 .....	20
3. 통계적 분석 .....	21
<b>V. 연구결과</b> .....	22
1. 기술통계 .....	22
2.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24
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27
나.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29
3.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31
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34
나.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36
<b>VI. 논의 및 결론</b> .....	38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38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39
<b>참 고 문 헌</b> .....	41
<b>Abstract</b> .....	44
<b>부 록</b> .....	47

## 표 목 차

<표Ⅳ-1> 인구통계학적 특성 .....	17
<표Ⅳ-2> 공격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17
<표Ⅳ-3> 청소년 비행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18
<표Ⅲ-4> 자기통제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19
<표Ⅲ-5> 또래동조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	20
<표Ⅳ-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22
<표Ⅴ-7>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24
<표Ⅴ-8>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	25
<표Ⅴ-9>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	25
<표Ⅴ-10>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	27
<표Ⅴ-11>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	28
<표Ⅴ-12>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	29
<표Ⅴ-13>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	30
<표Ⅴ-14>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31
<표Ⅴ-15>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	32
<표Ⅴ-16>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	32
<표Ⅴ-17>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	34

<표 V-18>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	35
<표 V-19>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	36
<표 V-20>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	37

##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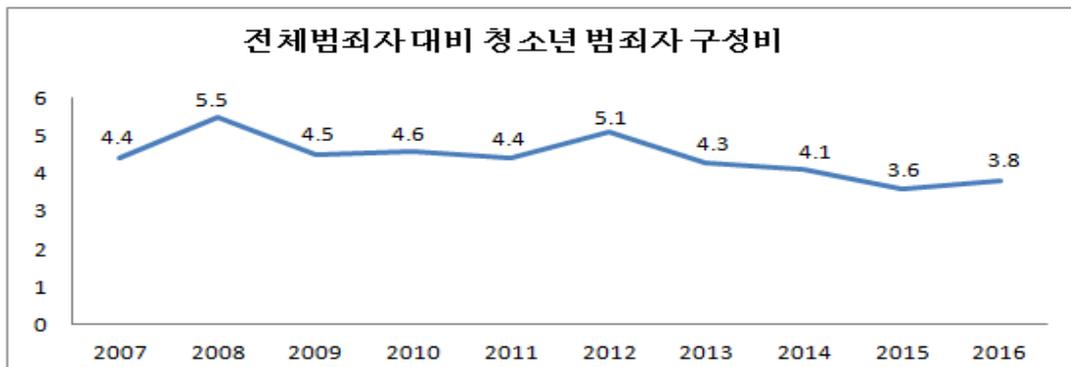
[그림 I -1] 전체 범죄자대비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	1
[그림 III-1] 연구모형 .....	1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가치를 습득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가치관을 얼마나 올바르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역할 수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무분별한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면 바람직한 청소년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청소년 비행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그림 I-1]과 같다. 청소년 범죄자 구성 비율은 2007년 4.4%였다가 2008년 5.5%로 최고치를 보였고, 2016년 3.8%로 감소하였다.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이 2009년에 감소한 것은 2008년 6월에 개정된 소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2012년도에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대검찰청, 2017; 여성가족부, 2017: 404).



[그림 I-1]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 구성비

대검찰청(2017) 자료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현황에서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강력범의 비율이 2007년 1,928건에서 2016년 3,343건으로 2007년과

2016년 10년 사이에 57.5% 증가하였다. 이는 강력범죄 분류에서 흉악범죄의 감소 비중보다 성폭력 범죄의 증가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강력범죄 비율의 증가가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406). 이처럼 최근에 강력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이전의 청소년 비행보다 비행 수준이 높아졌고, 재범 소년범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어른들의 범죄 행동과 많은 부분 닮아있기도 하지만 정도의 차이나 개선 가능성, 현행법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성인의 범죄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 소년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죄질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선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는 보호소년 수용 및 교육, 사회복귀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집행, 결정전 조사 및 환경조사 등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445-463).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 청소년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선도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자아정체감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발달상의 시기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및 위기 경험에서 얻는 것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사회 기술 습득 정도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존 연구에서 공격적인 청소년은 공격적이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사회적·관계적인 기술에서의 결함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대인 관계적 갈등의 어려움에 있어서 갈등과 공격적인 반응수준을 악화시킨다는 결과(Kastner, 1998: 24)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공격적인 청소년은 사회적·관계적인 기술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향후 대인 관계적 갈등의 어려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동향 및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주요 변수들 간 관계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을 이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저연령화와 비행수준이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 비행의 양상을 이해하고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 비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비행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의 주된 정서적 요인이라는 것,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은 서로 양방향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자는 이 양방향적 관계에서 개인 내적, 개인 외적으로 발달상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혀진 다양한 변인 중 개인 내적인 요인을 자기통제력 변인으로, 개인 외적 요인을 또래동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서 죄를 범한 소년인 범죄소년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심미영 외, 2007)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의 시작점이 중학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비율에서 성인을 제외하고 중·고등학생 나이대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여성가족부, 2017)한다는 것을 보아 청소년 비행이 주로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생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연구자가 느꼈기 때문이다. 공격성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혜정 외, 2005)를 토대로 하여 공격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중학생을 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부적 요인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에 주요한 보호요인인 자기통제력, 위험요인인 또래동조성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주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공격성,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청소년 비행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격성

공격성은 타인이나 대상에 위협이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포함한다. 신체적·언어적인 충동이나 행동 경향성, 분노나 화를 느끼는 정도, 상대를 적으로 여기며 맞서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

### 나.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저지르는 절도, 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비롯하여 사회규범 및 질서 위반 등의 경험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문제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의 개념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청소년 비행을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오프라인 비행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일탈을 의미하며, 온라인 비행은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 다. 자기통제력

어떤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사고.감정.행위.반응 등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내적인 힘을 의미하며,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단순과제 선호, 모험추구, 신체활동 선호, 자기중심, 화 기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라. 또래동조성

또래의 행동에 의견을 같이 하거나 찬성하여 행동을 같이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또래의 행동 권유에 함께 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독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두 가지 측면에서 또래동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독립적 행동은 오락, 쇼핑, 취향 등과 관련된 선택의 상황에서 또래의 선호나 의견, 태도, 행동 등에 따르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반사회적 행동은 절도, 공공기물 파손, 욕설 등 위법 행위나 규칙 위반과 관련된 행동을 또래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따르려는 정도를 측정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격성

#### 가.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대상들에 대한 파괴적이고 처벌적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Spielberger et al., 1983: 162) 공격성은 적개심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장양자(2001)에 의하면 공격성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과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자체가 목적인 적의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곽상은, 2012: 12-13 재인용)하였다.

Crick(1995)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남자아동들은 여자아동들보다 상당히 더 공격적이라고 증명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의 공격성은 신체적.언어적인 공격성을 공격성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공격성의 범주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이외에도 관계적 공격성의 의미가 포함되었다. 최근 연구들에서 관계적 공격성은 남자아동들보다 여자아동들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은 기존 연구에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진 신체적.언어적인 공격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히 유의미한 방법으로 성별과 사회.심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심각한 적응 어려움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냈는데,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우울을 보이며 공격적인 또래와 어울리지 않는 또래 친구들에게 소외되거나 거부되었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여자아동들이 지닌 적응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공격성의 성질은 발달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먼저 2~3세의 아동인 경우 친구와의 놀이에서 오는 좌절이나 공격에 대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3~5세의 아동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보다는 언어적 공격성(고자질하기, 별명 부르기 등)이 자주 나타난다. 7세 정도의 아동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

도로 적대적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며, 13~15세 청소년들은 적대적·외현적 공격성이 최고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 및 화를 표현하기 위해 절도, 욕설 등과 같은 비행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황의정, 2013: 11 재인용).

공격적인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적대적인 긴장에 기인하기 쉽고, 타인의 행동의도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사회적·대인관계적인 신호에 덜 신경을 쓴다. 또한, 사회적인 자극들에 의해 유도된 높은 수준의 분노, 낮은 수준의 자기가치와 자기평가를 보고한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공격적이지 않은 청소년보다 타인의 행동을 더욱 더 빈번히 오해하는데, 이러한 귀인 경향과 인지적 왜곡은 ‘화’라는 정서의 진술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 양상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Kastner, 1998: 24).

또한 Kastner(1998)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공격적인 청소년은 공격적이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할 때 사회적·관계적인 기술에서의 결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부족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대인 관계적 갈등의 어려움에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고 했지만 결국 갈등과 공격적인 반응수준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그 시기에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발달 과업을 놓치게 된다. 소수의 공격성을 비롯한 폭력성의 발달상의 결과와 경로들은 강조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은 공격성이 오랜 시간동안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기질적·정서적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의 공격성은 공격성에 이르는 전조 또는 동시발생적인 상황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족, 또래, 이웃들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밝혀졌다(Loeber et al., 1997: 37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 공격성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신체적·언어적·관계적으로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행위나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

기존 연구들에서 공격성을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주된 정서적 특징으로 보고 있다(임진섭, 2009: 102 재인용). 임진섭(2009)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행동과 양방향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는 공격성이 청소년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 비행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공격성은 학습의 산물로 보기도 하는데 폭력, 절도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격성이 발휘된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청소년 비행을 경험하거나 청소년 비행 관련 학습을 통해 공격성을 더욱 더 증가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곽상은(2012)은 애착, 비공식낙인, 공격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혔다. 정민희·유서구(201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혜정 외(2015)은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청소년 비행을 경험하고, 중학교 시기의 공격성향이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경험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 2. 청소년 비행

### 가. 청소년 비행의 개념

비행은 라틴어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히 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김수현, 2003: 7). 청소년 비행은 시대 흐름상,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심미영과 정규석(2007: 149-150)은 청소년 비행을 미성년 청소년들에게 쓰이는 용어으로써 사회적.법률적.도덕적.교육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소년범죄 및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비행과 지위비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남(2010: 7)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법률적인 의미에 지위비행이라는 개념적 의미를 덧붙여 정의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비행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지위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약물비행으로 범주화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비롯한 사회규범이나 규칙,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정의하며, 성인이 행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 행할 때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

문에 문제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 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비행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받으며 점차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단일적인 요인으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차원적이고 다요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많은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내적요인과 개인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청소년 비행(지위비행 포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으로는 공감능력(2009), 공격성(곽상은, 2012; 정민희 외, 2017; 진혜민 외, 2011; Loeber et al., 1997), 분노표현(조혜리, 2009), 애착(곽상은, 2012), 자기통제력(민수홍, 2006; 이성식, 2007; Gottfredson et al., 1990) 등이 제시되었다. 개인 외적요인으로는 또래동조성(김정남, 2010), 또래압력(김다영, 201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김수현, 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조혜리, 2009), 비공식낙인(곽상은, 2012; 진혜민 외, 2011), 비행친구(손영민, 2015; 이성식, 2007)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하였다. 김수현(2003)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혜리(2009)는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청소년 비행과 다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이를 통해 공감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대해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다영(2013: 33)은 연구에서 대전 및 충남 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과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임을 밝혔다. 손영민(2015)은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비행친구와의 교류수준과 상호작용을 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완충효과를 보임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수준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학교환경 변인인 교사지지, 학교성적 등을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정남, 2010).

이에 반해, 공격성과 우울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 개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청소년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혜은 외, 2008). 부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 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이혜은 외, 2008; 조혜리, 2009). 손영민(2015)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진혜민 외(2012) 연구자들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정리하였다. 메타분석을 통해 밝힌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은 총 36개로 나타났다. 통합된 상관계수의 결과 중에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개인적 변인(자기통제력, 공격성, 우울, 충동성, 자기효능감, 성별, 의사소통 등), 친구관련 변인(비행친구, 또래동조성 등), 가족관련 변인(가족갈등,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언어학대, 부모감독, 가족지지, 부모애착, 부모통제, 부부갈등, 부모유대, 가족응집성, 부모양육태도, 가족결손, 경제상태 등), 기타 환경적 요인(교사지지, 유해환경, 교사애착, 스트레스, 학교애착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 3. 자기통제력

#### 가. 자기통제력의 개념

자기통제이론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비행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행을 저지르지의 여부는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김다영, 2013: 10). 즉, 개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지의 여부는 자기통제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김다영, 2013: 2).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자기통제력을 ‘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환경에서든지 타의적으

로 주어진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비행과 범죄 행위의 기회에 노출되어 있을 때, 비행과 범죄 행위를 피하려는 사람과 비행과 범죄를 행하는 개인의 차별적인 경향성' 이라고 정의하였다(정덕순, 2008: 11).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이른 시기에 얻게 되며, 한번 얻게 되면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높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따른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높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쾌락추구를 지연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타인의 고통과 이해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근시안적이고 무신경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김다영, 2013: 11).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자기와 비슷한 또래 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Chapple, 2005).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Gottfredson과 Hirshi(1990)의 일반이론에서 범죄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는 자기통제력의 부족이라고 주장한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범죄행위나 범죄유사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자극을 받게 되면, 범죄행위나 범죄유사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하창순, 2004: 25 재인용)고 한다.

#### 나.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Gottfredson과 Hirshi(1990)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을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개인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이론을 토대로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상관을 알아보려고 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이 높다는 일반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하기 시작하며, 이는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성식, 2007: 160). 하창순(2004)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지닌 사람의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추구하고 복잡한 일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또한 흥분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모험을 선호하고, 정신적인 활동보다 신체적인 활동을 즐기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순재(2005)에 따르면 청소년기 동안 지속적인 청소년 비행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민수홍(2006: 40)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과 범죄(지위비행, 범죄, 남 괴롭히기, 컴퓨터 일탈 등)에 대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청소년 비행과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성식(2007: 173)은 중학교 2학년 3,2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을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 비행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비행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중비행에서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변인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김정남(2010: 58)은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있어 보호요인으로서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의 수준이 낮아짐을 밝혔다. 김다영(2013: 28-33)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통제력은 또래압력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손영민(2015: 56)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며, 자기통제력이 증가할 때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감소한다는 Gottfredson과 Hirshi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4. 또래동조성

##### 가. 또래동조성의 개념

또래(peer)란 서로 비슷한 나이, 학년 수준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 시기에 또래집단은 가치정립이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래동조성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표현(김정남, 2010: 11)의 일종으로서 청소년의 관심사나 생활에 대해서 또래

와 공유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 확대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또래관계에서의 동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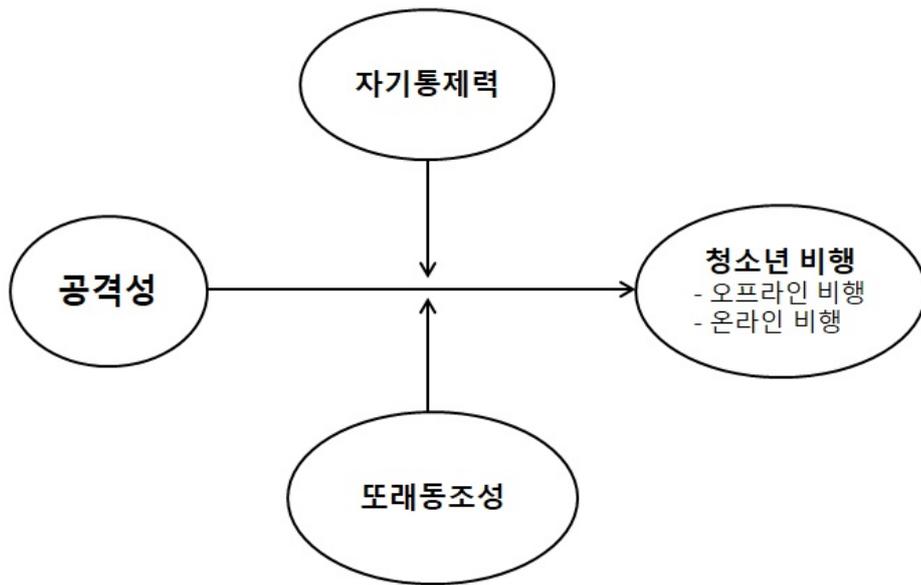
또래동조성의 개념은 또래압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Brown과 그의 동료들은 또래동조성과 또래압력이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또래동조성은 또래압력을 선행적으로 지각한 뒤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행동적인 기질로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또래압력은 개인이 받는 또래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김다영, 2013: 2, 재인용).

#### 나.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

심미영과 정규석(2007)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행친구 수는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행친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기에 또래집단과의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며,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변수로 설명되어왔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규범이 청소년 비행에 적용된다고 보았다(김다영, 2013). 청소년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 어떠한가에 따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또래동조성은 중립적인 상황보다 반사회적 상황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았다(김정남, 2010).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영(2013: 30-32)의 연구에서도 또래동조성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래동조성 변인은 또래압력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고 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주었다. 손영민(2015: 55)은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시기에 비행친구 수, 또래동조성 등의 또래친구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Ⅲ. 가 설

연구문제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모형을 [그림Ⅲ-1]와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공격성,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청소년 비행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  
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  
기통제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조절효과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에서 또래동조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에서 또래동조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내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연구자가 제주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고, 각 시의 동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를 학교 위치에 따라 동, 서, 중앙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유층표집을 하였다. 서귀포시 지역의 중학교는 제주시 지역의 중학교보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표본에서의 학생 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서귀포시 지역 중학교 1개교를 더 표집 하였다. 총 7개교(제주시 3개 중학교, 서귀포시 4개 중학교)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각 학교에서 2~3개 반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8년 3월 29일에 학생들에게 최초 배부하여 4월 5일 설문지 회수를 완료하였고, 총 1주일에 걸쳐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시간은 한 학생당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총 517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중복응답 등의 이유로 자료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495부의 자료를 이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IV-1>과 같다. 먼저 제주지역별 분포는 제주시 289명(58.4%), 서귀포시 206명(41.6%)이고, 남학생이 263명(53.1%), 여학생이 232명(46.9%)으로 나타났다.

<표IV-1> 인구통계학적 특성

(N=495)

구 분	성 별	인구 수(비율)
성 별	남 자	263명(53.1%)
	여 자	232명(46.9%)
학 년	1학년	185명(37.4%)
	2학년	125명(25.2%)
	3학년	185명(37.4%)

## 2. 측정도구

### 가. 공격성 질문지

<표IV-2> 공격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신체적 공격성	1, 2, 3, 4, 5, 6, 7*, 8, 9	9	.763
언어적 공격성	10, 11, 12, 13, 14	5	.638
분노감	15, 16, 17, 18, 19*	5	.589
적대감	20, 21, 22, 23, 24, 25, 26, 27	8	.792
	전 체	27	.860

\*은 역 채점 문항

이 연구에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수균 등(2002)이 연구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서수균 등(2002)이 번안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2문항을 제외한 총 27문항을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의 연구대상이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에

게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연구자가 판단하여, 공격성 질문지 문항을 중학생 및 중.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자문을 얻어 본래 질문지의 의미를 최대한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 등 총 4가지 하위요인 및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서수균 외(2002) 연구에서의 Cronbach' s  $\alpha$ 는 신체적 공격성은 .740, 언어적 공격성은 .730, 분노감은 .670, 적대감은 .760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s  $\alpha$ 는 .860이다. 이 연구에서의 공격성 하위요인별로 Cronbach' s  $\alpha$ 를 살펴보면 <표IV-2>와 같다. 신체적 공격성은 .763, 언어적 공격성은 .638, 분노감은 .589, 적대감은 .792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 s  $\alpha$ 는 .860이다.

#### 나. 청소년 비행 척도

<표III-3> 청소년 비행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해당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오프라인 비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711
온라인 비행	15, 16, 17, 18, 19, 20	6	.501
	전 체	20	.772

청소년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광상은(2012)이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된 오프라인 비행척도와 온라인 비행 척도를 종합한 것을 이 연구의 청소년 비행 척도로 사용하였다. 청소년 비행 척도는 오프라인 비행 14문항과 온라인 비행 6문항을 합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프라인 문항은 '선생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대들기', '시험시간에 컨닝(부정행위)하기',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학용품 비, 준비물비 다른 데 사용하기', '집단따돌림 시키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헐뜯하기',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남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가출하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문항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정보 퍼뜨리기’, ‘불법프로그램 다운받아 사용하기’, ‘남의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별.나이 속이기’, ‘타인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 게시판에서 욕설/폭언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청소년 비행 문항에 대해 최근 1년간 경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없다(1점)’와 ‘있다(2점)’로 점수를 측정하였고, 20~40점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청소년 비행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720이며, 이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772로 산출되었다.

#### 다. 자기통제력 척도

<표IV-4> 자기통제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해당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충동성	1*, 2*, 3*, 4*	4	.528
단순과제 선호	5*, 6*, 7*, 8*	4	.758
모험추구	9*, 10*, 11*, 12*	4	.816
신체활동 선호	13*, 14*, 15*, 16*	4	.867
자기중심	17*, 18*, 19*, 20*	4	.722
화 기질	21*, 22*, 23*, 24*	4	.693
	전 체	24	.810

\*은 역 채점 문항

이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하창순(2004)이 Grasmick, Tittle, Bursic. & Arneklev(1993)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시 역번역한 후, 원 척도와 의미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Grasmick 등(1993)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4점 Likert 척도로 측정이 되었으나, 하창순(2004)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였다.

기존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에게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연구자가 판단하여, 자기통제력 문항을 중학생 및 중.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자문을 얻어 본래 문항 의미를 최대한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충동성, 단순과제 선호, 모험추구, 신체활동 선호, 자기중심, 화 기질 등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하창순(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 전체 점수 합이 높을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결과를 해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논리적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 문항을 역 채점하여 전체 점수 합이 높을수록 높은 자기통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 하창순(2004) 연구에서의 Cronbach' s  $\alpha$ 는 충동성은 .640, 단순과제 선호는 .680, 모험추구는 .810, 신체활동 선호는 .780, 자기중심은 .740, 화 기질은 .560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s  $\alpha$ 는 .740이다. 이 연구에서의 자기통제력 하위요인별로 Cronbach' s  $\alpha$ 를 살펴보면 <표IV-4>와 같다. 충동성은 .528, 단순과제 선호는 .758, 모험추구는 .846, 신체활동 선호는 .867, 자기중심은 .722, 화 기질은 .69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 s  $\alpha$ 는 .810이다.

라. 또래동조성 척도

<표IV-5> 또래동조성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해당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 s $\alpha$
중립적 행동	1, 3, 5, 7, 9, 11, 13, 15	8	.665
반사회적 행동	2, 4, 6, 8, 10, 12, 14, 16	8	.719
	전 체	16	.763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또래동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경희(1990)의 또래동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Berndt(1979)의 또래동조성 척도 20가지 문항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잘 나타낸다고 판단된 11개의 문항을 오경희(1990)가 추출하여 번안·수정하였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오경희(1990)가 직접 제작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10가지 문항 중에서 5가지 문항을 추출한 후 Berndt(1979)의 11 문항에 추가하여 총 16개 문항의 또래동조성 척도를 완성하였다.

또래동조성에 관한 16가지 문항은 중립적 행동과 관련한 8문항,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드시 동조하지 않는다(1점)’ 부터 ‘반드시 동조한다(6점)’ 까지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6~96점 점수 범위 내에서 점수가 클수록 또래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존 오경희(1990) 연구에서의 Cronbach' s  $\alpha$ 는 중립적 행동은 .670, 반사회적 행동은 .740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또래동조성 하위요인별로 Cronbach' s  $\alpha$ 를 살펴보면 <표III-5>와 같다. 중립적 행동은 .665, 반사회적 행동은 .719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 s  $\alpha$ 는 .763이다.

### 3. 통계적 분석

제주도 내 중학교 학생 4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공격성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 V.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 1.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V-6>과 같다.

<표 IV-6>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495)

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1 공격성	1					
2 청소년 비행	.434***	1				
2a 오프라인 비행	.400***	.962***	1			
2b 온라인 비행	.376***	.772***	.570***	1		
3 자기통제력	-.453***	-.288***	-.273***	-.232***	1	
4 또래동조성	.173***	.280***	.295***	.157***	-.280***	1
<i>M</i>	2.097	1.068	1.070	1.064	3.294	2.880
<i>SD</i>	.521	.115	.127	.126	.509	.665
왜도	1.023	3.263	3.495	2.663	.131	-.033
첨도	1.031	14.689	17.676	9.794	.873	.445

\* $p < .05$ , \*\* $p < .01$ , \*\*\* $p < .001$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 연구 주요 변인인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V-6>과 같다.

상관분석의 결과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각 변수들 상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r=.434, p<.001$ )을 보였으며,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 하위 요인인 오프라인 비행( $r=.400, p<.001$ )과 온라인 비행( $r=.376, p<.001$ )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은 자기통제력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r=-.453, p<.001$ )을 보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높을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은 또래동조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r=.173, p<.001$ )을 보였으며,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동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은 또래동조성 하위 요인인 중립적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반사회적 행동( $r=.256, p<.001$ )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은 유의미한 부적상관( $r=-.288, p<.001$ )을 보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은 정적상관( $r=.280, p<.001$ )을 보이며,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결과를 통해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각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공격성 전체 평균은 2.097, 표준편차는 .521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의 하위요인 중 오프라인 비행의 평균은 1.070, 표준편차는 .127, 온라인 비행의 평균은 1.064, 표준편차는 .126, 청소년 비행 전체 평균은 1.068, 표준편차는 .115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전체 평균은 3.294, 표준편차는 .509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성 하위요인 중 중립적 행동 평균은 28.281, 표준편차는 6.367, 반사회적 행동 평균은 17.796, 표준편차는 6.418, 또래동조성 전체 평균은 2.880, 표준편차는 .665로 나타났다.

## 2.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표IV-7>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868	.019				
	공격성	.095	.009	.434	10.693***	1.000	1.000
2	(상수)	.978	.047		20.767***		
	공격성	.084	.010	.382	8.434***	.795	1.258
	자기통제력	-.026	.010	-.115	-2.550*	.795	1.258
3	(상수)	.470	.104		4.539***		
	공격성	.330	.046	1.503	7.166***	.035	28.597
	자기통제력	.137	.031	.606	4.358***	.079	12.587
	공격성*자기통제력	-.080	.015	-1.045	-5.468.***	.042	23.736

\* $p < .05$ , \*\*\* $p < .001$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격성 변인을 투입,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격성과 조절변수인 자기통제력을 투입,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공격성\*자기통제력)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먼저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732로 나타나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단계인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3단계에서 공차한계 값이 모두 0.1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

<표 V-8>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1.068	.005		230.094***		
	공격센터링	.095	.009	.434	10.693***	1.000	1.000
2	(상수)	1.068	.005		231.374***		
	공격센터링	.084	.010	.382	8.434***	.795	1.258
	통제센터링	-.026	.010	-.115	2.550*	.795	1.258
3	(상수)	1.058	.005		219.711***		
	공격센터링	.066	.010	.301	6.498***	.715	1.398
	통제센터링	-.032	.010	-.141	-3.181**	.786	1.272
	공격통제센터링	-.080	.015	-.226	5.468***	.897	1.11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V-9>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N=495)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S.E.	공선성 통계량					
					$\Delta R^2$	F 변화량	df <sub>1</sub>	df <sub>2</sub>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Watson
1	.434	.188	.187	.10327	.188	114.347	1	493	.000	
2	.446	.199	.196	.10270	.011	6.502	1	492	.011	
3	.495	.245	.240	.09981	.046	29.899	1	491	.000	1.732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격성의 평균중심화 값을 공격센터링, 자기통제력의 평균중심화 값을 통제센터링, 그리고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을 공격통제센터링으로 입력하고 변수계산을 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V-9>와 <표V-10>과 같다.

평균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표V-10>에서 모형 1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에 18.7% 설명하고 있고,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34, p<.001$ ). 모형 2에서 공격성과 조절변인인 자기통제력을 투입한 결과 모형 1보다 더 높은 19.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공격성( $\beta=.382, p<.001$ )과 자기통제력( $\beta=-.115, p<.05$ )은 청소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 2보다 더 높은 24.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 자기통제력,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 3으로 갈수록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청소년 비행을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 전체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경우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V-11>와 <표 V-12>과 같다.

<표 V-10>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1.070	.005					
	공격센터링	.097	.010	.400	204.945***	9.690***	1.000	1.000
2	(상수)	1.070	.005					
	공격센터링	.084	.011	.347	206.056***	7.546***	.795	1.258
	통제센터링	-.029	.011	-.116	-2.522*	.795	1.258	
3	(상수)	1.060	.005					
	공격센터링	.067	.012	.274	194.489***	5.778***	.715	28.597
	통제센터링	-.035	.011	-.139	-3.074**	.786	12.587	
	공격통제센터링	-.081	.017	-.206	-4.866***	.897	23.736	

\* $p < .05$ , \*\* $p < .01$ , \*\*\* $p < .001$

<표 V-11>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N=495)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S.E.	공선성 통계량					
					$\Delta R^2$	F 변화량	df <sub>1</sub>	df <sub>2</sub>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 Watson
1	.400	.160	.158	.11615	.160	93.894	1	493	.000	
2	.413	.171	.167	.11552	.011	6.360	1	492	.012	
3	.457	.209	.204	.11295	.038	23.682	1	491	.000	1.683

평균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표 V-12>에서 모형 1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오프라인 비행을 16.0% 설명하고 있고,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00, p<.001$ ). 모형 2에서 공격성과 조절변인인 자기통제력을 투입한 결과 모형 1보다 더 높은 17.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공격성( $\beta=.347, p<.001$ )과 자기통제력( $\beta=-.116, p<.05$ )은 오프라인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 2보다 더 높은 20.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 자기통제력,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오프라인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 3으로 갈수록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경우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기에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13>와 <표 V-14>과 같다.

<표 V-12>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1.064	.005		202.112***		
	공격센터링	.091	.010	.376	9.006***	1.000	1.000
2	(상수)	1.064	.005		202.468***		
	공격센터링	.083	.011	.341	7.296***	.795	1.258
	통제센터링	-.019	.012	-.077	-1.655	.795	1.258
3	(상수)	1.054	.006		190.816***		
	공격센터링	.065	.012	.269	5.580***	.715	1.398
	통제센터링	-.025	.011	-.100	-2.170**	.786	1.272
	공격통제센터링	-.079	.017	-.202	-4.688***	.897	1.11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V-13>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N=495)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S.E.	공선성 통계량					
					$\Delta R^2$	F 변화량	df <sub>1</sub>	df <sub>2</sub>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 Watson
1	.376	.141	.140	.11710	.141	81.109	1	493	.000	
2	.382	.146	.143	.11689	.005	2.739	1	492	.099	
3	.457	.183	.178	.11448	.037	21.975	1	491	.000	1.991

평균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표 V-14>에서 모형 1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온라인 비행을 14.1% 설명하고 있고,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6, p<.001$ ). 모형 2에서 공격성과 조절변인인 자기통제력을 투입한 결과 모형 1보다 더 높은 14.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 2보다 더 높은 1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 자기통제력,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가 온라인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형 3으로 갈수록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에서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공격성-오프라인 비행 관계에서 온라인 비행에서보다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표 V-14>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868	.019				
	공격성	.095	.009	.434	10.693***	1.000	1.000
2	(상수)	.780	.025		31.054***		
	공격성	.087	.009	.397	9.901***	.970	1.031
	또래동조성	.036	.007	.211	5.261***	.970	1.031
3	(상수)	.801	.082		9.735***		
	공격성	.078	.037	.354	2.077*	.054	18.514
	또래동조성	.029	.028	.170	1.065	.061	16.329
	공격성*또래동조성	.003	.012	.066	.265	.025	39.449

\* $p < .05$ , \*\* $p < .01$ , \*\*\* $p < .001$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격성 변인을 투입,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공격성과 조절변수인 또래동조성을 투입,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 항(공격성\*또래동조성)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먼저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1.637로 나타나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단계인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3단계에서 공차한계값이 모두 0.1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IV-15>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1.068	.005		230.094***		
	공격센터링	.095	.009	.434	10.693***	1.000	1.000
2	(상수)	1.068	.005		236.239***		
	공격센터링	.087	.009	.397	9.901***	.970	1.031
	동조센터링	.036	.007	.211	5.261***	.970	1.031
3	(상수)	1.068	.005		232.937***		
	공격센터링	.087	.009	.396	9.782***	.955	1.049
	동조센터링	.036	.007	.210	5.168***	.951	1.051
	공격동조센터링	.003	.012	.011	.265	.959	1.043

\*  $p < .05$ , \*\*  $p < .01$ , \*\*\*  $p < .001$

<표IV-16>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N=495)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S.E.	공선성 통계량					
					$\Delta R^2$	F 변화량	df <sub>1</sub>	df <sub>2</sub>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Watson
1	.434	.188	.187	.10327	.188	114.347	1	493	.000	
2	.481	.232	.228	.10059	.043	27.678	1	492	.000	
3	.541	.292	.288	.09963	.000	.070	1	491	.791	1.637

앞에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격성의 평균중심화 값을 공격센터링, 또래동조성의 평균중심화 값을 동조센터링, 그리고 조절효과의 상호작용항을 공격동조센터링으로 입력하고 변수계산을 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V-16>와 <표V-17>과 같다.

평균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표V-16>에서 모형 1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을 18.8% 설명하고 있고,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34, p<.001$ ). 모형 2에서 공격성과 조절변인인 또래동조성을 투입한 결과 모형 1보다 더 높은 2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공격성( $\beta=.397, p<.001$ )과 자기통제력( $\beta=.211, p<.001$ )은 청소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공격성과 또래동조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가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경희(1989)논문에서의 연구대상은 초5, 중1, 중3, 고2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연구에서의 대상은 중학생 1~3학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상이하고, 기존 논문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중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모두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중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평균이 각각 28.281, 17.196이었는데, 중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평균차가 1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또래동조성 문항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보아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청소년 비행을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 전체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경우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V-20>과 <표 V-21>과 같다.

<표 V-17>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1.070	.005				204.945***
	공격센터링	.097	.010	.400			9.690***
2	(상수)	1.070	.005				211.424***
	공격센터링	.087	.010	.360		.970	8.855***
	동조센터링	.044	.008	.232		.970	5.714***
3	(상수)	1.069	.005				208.461***
	공격센터링	.087	.010	.357		.955	8.717***
	동조센터링	.044	.008	.229		.951	5.584***
	공격동조센터링	.007	.014	.021		.959	50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V-18>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N=495)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S.E.	공선성 통계량					
					$\Delta R^2$	F 변화량	df <sub>1</sub>	df <sub>2</sub>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 Watson
1	.400	.160	.158	.11615	.160	93.894	1	493	.000	
2	.461	.212	.209	.11259	.052	32.652	1	492	.000	
3	.561	.213	.208	.11267	.000	.251	1	491	.616	1.611

평균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표 V-20>에서 모형 1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오프라인 비행을 16.0% 설명하고 있고,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00, p<.001$ ). 모형 2에서 공격성과 조절변인인 또래동조성을 투입한 결과 모형 1보다 더 높은 21.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공격성( $\beta=.360, p<.001$ )과 또래동조성( $\beta=.232, p<.001$ )은 오프라인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공격성과 또래동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경우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기에 평균중심화 값을 계산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22>와 <표 V-23>과 같다.

<표 V-19>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①

(N=495)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	VIF
1	(상수)	1.064	.005		202.112***		
	공격센터링	.091	.010	.376	9.006***	1.000	1.000
2	(상수)	1.064	.005		202.949***		
	공격센터링	.087	.010	.359	8.516***	.970	1.031
	반센터링	.018	.008	.095	2.256*	.970	1.031
3	(상수)	1.064	.005		200.218***		
	공격센터링	.088	.010	.361	8.488***	.955	1.047
	반센터링	.018	.008	.097	2.283*	.951	1.051
	공격반센터링	-.005	.014	-.016	-.369	.959	1.043

\*  $p < .05$ , \*\*  $p < .01$ , \*\*\*  $p < .001$

<표 V-20>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  
 - 평균중심화 ②

(N=495)

모형	R	R <sup>2</sup>	Adj R <sup>2</sup>	추정값의 S.E.	공선성 통계량					
					$\Delta R^2$	F 변화량	df <sub>1</sub>	df <sub>2</sub>	유의확률 F 변화량	Durbin- Watson
1	.376	.141	.140	.11710	.141	81.109	1	493	.000	
2	.387	.150	.147	.11662	.009	5.089	1	492	.025	
3	.388	.150	.145	.11672	.000	.136	1	491	.712	1.908

평균중심화 계산식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들을 가지고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먼저 <표 V-14>에서 모형 1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온라인 비행을 14.0% 설명하고 있고,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6, p<.001$ ). 모형 2에서 공격성과 조절변인인 또래동조성을 투입한 결과 모형 1보다 더 높은 15.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 공격성과 또래동조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제주도에 위치한 7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3학년 49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 연구의 변인인 공격성,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통제력과 또래동조성이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수들 상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 및 또래동조성에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통제력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래동조성이 높으며,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은 유의미한 부적상관( $r = -.288, p < .001$ )을 보이며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동조성과 청소년 비행은 정적상관( $r = .280, p < .001$ )을 보이며,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또래동조성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부적 상관을 보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다영, 2013; 김성식, 2007; 민수홍, 2006; 손영민, 2015; 이순재,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통제력은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래동조성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경희(1989) 논문에서의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5학년, 중학생 1학년, 중학생 3학년,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연구에서의 대상은 중1~3학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상이하며 기존 논문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중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모두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중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평균이 각각 28.281, 17.196이었는데, 중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평균차가 1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또래동조성 문항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을 보아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청소년 비행의 각 하위요인과 또래동조성의 각 하위요인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조절효과를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공격성과 오프라인·온라인 비행 모두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중립적 행동은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공격성과 오프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의 하위요인인 반사회적 행동 또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공격성과 온라인 비행의 관계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또래동조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요인인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 경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개인 외적요인인 또래동조성은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중학생 비행 경험을 낮추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외적요인인 또래동조성보다 개인 내적요인인 자기통제력에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제주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의 중학생을 연구로 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타 지역 중학생의 비행과 비교 연구 및 요인 차이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하였는데 대검찰청(2017) 자료를 보면 중학생 청소년의 비행 비율보다 고등학생 청소년의 비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등학생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중학생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고등학생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나이에 따라 비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또래동조성 척도는 하위요인을 독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성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을 하위변인인 독립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적 상황에서의 동조성향과 반사회적 상황에서의 동조성향의 의미가 다소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동조성을 타당하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또래동조성의 척도가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의 특성을 잘 측정할 수 있고 기존의 또래동조성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척도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상은 (2012). 애착, 비공식낙인, 공격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김다영 (2013). 또래압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김수현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친구집단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남 (2010). 또래동조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검찰청 (2017). 2017 범죄분석. 대검찰청.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서수균.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487-501.
- 손영민 (2015).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심미영.정규석 (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171.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오경희 (1989).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 비행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혜은.최정아 (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이혜정. 위슬아.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4), 675-695.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정덕순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의 동조압력과 공격행동과의 관계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민희.유서구 (2017). 청소년의 공격성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 307-331.
- 조혜리 (2009). **양육행동, 공감능력, 분노표현 및 청소년비행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진혜민.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하창순 (2004).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황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 89-106.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stner, J. W. (1998). Clinical change in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A group therapy approac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Group Therapy*, 8, 23-33.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on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  
- Focused on the Middle School Student in Jeju

Im, I Hyun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juvenile delinquency,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In prior studies, aggression has been regarded as a major emotional feature of adolescents committing juvenile delinquency and has been presented as a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a long-term stable characteristic. The arguments for the meaningful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were supported by many studies. Also, self-control of a personal inner and protective factor and peer conformity of an individual

outer and dangerous factor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several studies. So,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tried to find out whether self-control of the major personal inner factor and peer conformity of the personal outer factor affecting adolescent delinquency act as moderating factor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

Th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effect does aggression, self-control, peer conformity and juvenile delinquency have on the relationship each other?

Second, What effect does self-control ha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Third, What effect does peer conformity ha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 the researchers surveyed 495 middle school students in 7 middle schools in Jeju Island. Of the total 517 collected questionnaires, 495 items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except for 22 questionnaires which were difficult to analyze because of nonresponses, unfaithful responses, and duplicate responses. The researchers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ggression, juvenile delinquency,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each of the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 $p < .001$ ). Agg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uvenile delinquency and peer conformity, and aggress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ontrol. Self-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s, peer conformity and juvenile delinquen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offline delinquency, online delinquency), it was found that self-control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 Self-control also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a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the sub-factors of delinquency.

Thir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the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offline delinquency, online delinquency), it was found that peer conformity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Also, as a result of dividing factors of delinquency, it was found that peer conformity did not show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sub-factors of delinquency.

Finally, aggression, delinquency, self-control, and peer conform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And self-control also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a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 It is consistent with prior studies that aggression is a protective factor in delinquency. In contras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peer conform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delinquency. The result of the prior study suggested that peer conformity is a risk factor for delinquency, but different result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cale of peer conformity and follow up on peer conformity and delinquency. Also, since adolescents tend to be affected by peers, further study should be needed to analyze more and dearly peer-related factors influencing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variables and concept differ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rasps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the main factors of delinquency. In addition, it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the result provided the basic data of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main factors affecting delinquency in many prior studies.

Key words : aggression, juvenile delinquency, self-control, peer conformity

# 부 록

<부록 1> 공격성 질문지

<부록 2> 자기통제력 척도

<부록 3> 또래경향성 척도

<부록 4> 청소년 비행 척도

## 설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본 설문지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체크를 멈춘 설문지는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에 이름을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응답인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내용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설문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 재 흥

석사과정 임 이 현

([im2kong@hanmail.net](mailto:im2kong@hanmail.net))

<부록 1> 공격성 질문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조절)하기 어렵다.					
2. 누군가 나를 화가 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3.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4.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5.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6.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7.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0. 나는 친구와 의견(생각)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1.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생각)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12.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생각)이 다를 때, 흔히 맞고 틀린 것을 따진다.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5. 나는 화가 빨리 나지만 또 빨리 풀어난다.					
16. 일이 뜻대로 안됐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17. 나는 때로 분노가 치밀어서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다.					
18.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9.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20.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21.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22.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23.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24. 나는 '내 친구'가 나에게 몰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26.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7. 누가 나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부록 2> 자기통제력 척도

문항	매우 동의 한다	약간 동의 한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 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1.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다.					
2. 미래에 대하여 생각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					
3.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4. 먼 미래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진다.					
5.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들은 자주 피하려고 한다.					
6. 복잡한 일을 포기하거나 물러서려는 경향이 있다.					
7. 하기 쉬운 일을 할 때 가장 즐겁다.					
8.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과정을 아주 싫어한다.					
9. 때때로 모험을 하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10. 때때로 재미 삼아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11. 때때로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흥분을 느끼곤 한다.					
12. 조금은 위험할지라도 어렵고 흥분되는 일이 더 좋다.					
13. 가능하다면 정신적인 것보다 오히려 신체적인 활동을 선택한다.					
14. 앉아서 생각할 때보다 움직이고 있을 때 항상 좋은 기분을 느낀다.					
15. 독서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6. 또래에 비해 에너지가 더 많고 바깥에서 활동적인 것 같다.					
17.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 자신을 돌보는 편이다.					
18.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19. 다른 사람들의 속을 뒤집히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다.					
20.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라도 나는 그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21. 나는 쉽게 화를 낸다.					

22. 종종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가 나 있을 때 왜 내가 화가 나있는지에 대해 말하기보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을 더 느낀다.					
23. 내가 정말로 화나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게서 떨어져있는 게 더 낫다.					
24. 어떤 사람과 심각하게 의견 다를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것에 대해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부록 3> 또래동조성 척도

1. 학교가 끝난 후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PC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게임을 하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게임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그냥 집에 혼자 간다.			친구들과 PC방에 간다.		

2.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어떤 작은 가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엔 주인이 보이질 않고, 주변엔 사람의 인기척도 없습니다. 길에 가까운 진열대 위에는 과자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한 개씩 몰래 집어 갔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가서 하나를 몰래 집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과자를 몰래 집어오지 않는다.			친구 따라 과자를 몰래 집어온다.		

3. 내가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던 TV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들이 토요일 오후에 시내에 가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집에서 TV를 본다.			친구들과 시내에 나간다.		

4.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담벼락 한 모퉁이에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라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담벼락에 분필로 낙서를 하자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쁜 것 인줄 압니다. 나는 낙서를 해야 할지, 아닐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낙서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학교 담벼락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친구 따라 담벼락에 낙서를 한다.		

5. 나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운동화를 사러 갔습니다. 점원이 어떤 운동화를 권해서 신어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친구들은 모두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그 운동화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운동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그 운동화를 사지 않는다.			친구 말대로 운동화를 산다.		

6. 나의 친한 친구들은 서로에게 은어나 욕을 사용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말이 귀에 거슬리고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나도 그런 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친구 따라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한다.		

7.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시내에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친구들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음식점 거리를 둘러보다가 친구들은 자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피자가 더 먹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나도 같이 중국집에 가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내가 먹고 싶은 피자를 먹는다.			친구 따라 중국집에 들어간다.		

8. 나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 몇 명과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선생님의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시험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험지는 바로 나와 내 친구들이 내일 보게 될 시험지의 답안지였습니다. 나는 그 시험지를 선생님께 돌려드릴지, 아닐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때 친구들이 내일 시험을 잘 보려면 그 시험지를 선생님께 돌려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시험지를 선생님께 돌려드린다.			시험지를 선생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		

9.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나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친구들과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놀이기구를 더 타고 싶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줄을 서 있는 동안 내가 더 타고 싶어 하는 놀이기구의 티켓을 가지고 가는 다른 어떤 아이를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내가 원하는 놀이기구를 타러간다.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린다.		

10. 나와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주말에 야외로 놀러 갔습니다. 아주 잘 꾸며놓은 잔디밭을 보았습니다. ‘출입금지’라는 경고판이 있었지만, 친구들은 모두 넘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나도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사진을 찍지 않는다.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다.		

11. 일요일 오후에 내가 만화책을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집에 와서 영화를 보러 친구 집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만화책을 보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친구들은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집에서 만화책을 본다.			친구 집에서 영화를 본다.		

12.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개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개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나도 돌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개한테 돌을 던지지 않는다.			친구 따라 개한테 돌을 던진다.		

13. 하루는 체육시간에 선생님께서 자유 시간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일어나면서 같이 가서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그냥 앉아서 쉰다.			친구들과 나가서 시합을 한다.		

14.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어떤 공터에서 놀다가 우연히 옆집 창문 하나를 켜습니다. 친구들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면서 달아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뭇거리면서 공터에 서있자, 친구들은 빨리 도망쳐 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			친구와 함께 도망친다.		

15. 시험을 앞두고 나는 공부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러가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내 계획대로 공부를 시작한다.			친구들과 같이 놀러간다.		

16. 내일은 학급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9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내일 아침에 어디에 들렀다 가자고 나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반드시	② 대체로	③ 아마도	④ 아마도	⑤ 대체로	⑥ 반드시
혼자 소풍 장소로 간다.			친구 따라 어디 들렀다 간다.		

<부록 4> 청소년 비행 척도

문항	있다	없다
1. 선생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대들기		
2. 시험 시간에 컨닝(부정행위)하기		
3.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4. 학용품비, 준비물비 다른 데 사용하기		
5. 집단따돌림 시키기		
6.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7. 남을 헐박하기		
8.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9. 술 마시기		
10. 담배 피우기		
11. 남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12.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1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14. 가출하기		
15. 인터넷게시판에 허위정보 퍼뜨리기		
16. 불법프로그램 다운받아 사용하기		
17. 남의 인터넷ID/주민번호 무단 사용하기		
18. 채팅하면서 성별, 나이 속이기		
19. 타인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하기		
20. 채팅 게시판에서 욕설/폭언하기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체크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